인천 명신여자고등학교 김민수 교사

평일 오후. 운동장 한편에서 체육 수업을 하는 학생들의 작은 소란스러움만 있을 뿐, 수업이 한창인 교정은 조용하다. 9월 중순을 넘어섰건만, 물러섬이 없는 늦더위를 피해 나무그늘에서 수업이 끝나길 기다렸다. 그리고 잠시 후, 수업을 마치는 종소리를 듣고 발길을 옮기려고 하니 김민수 씨가 먼저 알아보고 인사를 건넨다.

"3기로 천문지도사 연수를 받으면서 제 아마추어 천문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대학 시절 과학교육과에서 지구과학을 전공하면서 CCD로 논문을 썼는데, 그때 망원경을 만지면서 관심을 갖긴 했습니다. 교사가 되어서는 바로 아마추어 활동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학교에 적응하는 게 급선무였으니까요."

시간이 지나 적응이 될 때쯤 학생들에게 뭔가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으로 망원경을 구입하고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달을 보여줬다고 한다.

"길게 줄을 서 볼 만큼 학생들의 반응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자율학습 시간에 하다 보니 시끄러운 겁니다. 자습에 방해가 되니 계속 진행하기가 어렵더군요. 학생들에게 많이 보여주려면 밖으로 나가 활동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4, 5년 전부터 동아리 학생들을 데리고 우리나라 천문대라는 천문대는 거의 다 순례를 했습니다."

1박을 해야 하는 관계로 학생들과 움직이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한다. 그러나 그 당시 학생들이 관심이 많아 수시로 관측을 다녔다.

"10명 정도가 열심히 따라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 중 4명 정도 학생이 천문학과를 갔고요. 지구과학이 그렇게 선호되는 과목이 아닙니다. 특히 여학교에서는 더 한 경향이 있는데, 관심을 갖고 천문학을 선택한 학생들을 보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초창기 열기만큼은 아니지만, 지금도 과학교실과 같은 체험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고등학생들이다 보니 시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회를 나가서 수상이 가능한 올림파아드 같은 활동으로 학생들의 관심을 이끌어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천상열차분야지도를 주제로 과학전람회에서 특상을 받았습니다. 쉽지 않은 대회였는데, 학생들이 열심히 해서 수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대회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막상 실행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힘들기도 하거니와 시간도 많이 필요해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수상을 하면 진학에 도움이 되니 참여하려는 학생들은 많습니다. 창의력 올림파아드의 경우에는 한 팀이 7명인데, 8

팀이나 참여했습니다. 올림피아드를 위해서 무대도 만들고 하다 보니 학생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많습니다. 못도 박아야 하고, 톱질도 해야 하고…. 실험실이 난리가 나죠. 늦게까지 남아서 해야 하니 피곤하기도 합니다. 이런 활동이 학생들의 과학마인드 향상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국영수에 묻혀서 체험학습의 기회를 갖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초등학생 때는 뛰어났던 과학마인드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점차 사라지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한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시험 끝나면 PC방을 가고, 일본 학생들은 천문대를 간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학교와 학원을 빼면 갈 곳이 없습니다. 천문대 같은 곳이 많이 생기고 활성화되면 천문학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과학 전반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로 결정에도 큰 도움이 되겠죠."

과거에 비교해 공립 천문대가 늘고 있지만 그 수는 여전히 부족한 형편이다. 일본처럼 언제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천문대를 갖고 있는 곳은 전국적으로 몇 곳에 지나지 않는다.

"학교 옥상 같은 곳에 작은 천문대를 지어놓고 인근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는 그럴만한 예산이 없습니다. 반면, 구청과 같은 지자체 기관은 예산의 여지가 있지만 인력이 부족합니다. 학교와 지자체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협력한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들어서는 천문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도 많이 늘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초창기 천문지도사 연수에는 교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절반 이상이 일반인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희망을 갖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 서울경기인천지부 지부장을 맡고 있는 김민수 씨는 10월 초에 열릴 학생천체관측대회 준비에 바쁘다고 한다.

"지부장을 맡은 건 작년 7월부터입니다. 이전까지는 기획부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죠. 과거와 달리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고, 업무 분담도 잘 돼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행사가 주말에 많다보니 집에 있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다 학교일까지 겹치면…. 지난 두 달 동안 주말이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다 보니 아빠가 같이 놀아주고 하길 바라는데, 그렇지 못해서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 한편으로는 저의 이런 활동을 이해해주니 고마울 따름입니다."

학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김민수 씨는, 그러나 예전과 비교하면 정말 많이 편해졌다고 한다.

"예전에는 저 혼자 대부분의 일을 손에 쥐고 진행을 해야 했습니다. 회원들에게 연락하는 거 하나도 큰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락을 전담하는 분도 따로 있고 하니 많이 편해진 거죠. 사무실이 없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학회가 보다 발전해서 사무실도 생기고, 학회 직원도 생기고 하면 지금보다 운영이 훨씬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하겠죠."

지부장을 맡고 있다 보니 꼭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학회 모임에도 의무감에 가게 된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집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주말에 모임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은 미안한 마음에 연수나 행사에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덕분에 또래 아이들보다 별 볼 기회를 많이 갖게 되고 별자리나 그런 것도 많이 압니다. 집에 있는 게 온통 천문과 관련된 것이니 당연한 결과겠죠. 옛날에 일기를 본적이 있는데, '우리 아빠는 회사에 다닌다. 우리 아빠는 맨 날 늦게 들어온다. 우리 아빠는 라면만 잘 끓이신다. 우리 아빠는 살이 너무 많이 쪘다.' 이렇게 썼더군요. 다른 건 괜찮은데 '맨 날 늦게 들어온다.'는 대목에서 마음이 짠해지더군요."

방학에도 대회 준비로 제대로 쉰 적이 없다는 김민수 씨는 학교 현장에 있다 보니 현 교육 현실에 안타까운 점이 많다고 얘기한다.

"체험 위주, 경험 위주의 교육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거기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느끼는 괴리감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생활기록부에 기입돼야 하기 때문에 체험 활동을 하지만 체험 학습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학생 스스로가 경험하고 싶어서 찾아가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회 활동에 있어서도 일반인의 참여가 많이 늘었으면 합니다. 일반인들이 보다 많이 참여하여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별을 볼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꿈을 꿉니다."

김민수 씨의 바람이 바람으로만 그치지 않고 현실이 되는 세상을 그려본다.